

“가여운 새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미중 나와도 너희들을
길러주던 그 다정한 젖어미를 맞이하지 못할 거야.”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사람을 찾듯 그의 앞을 어슬렁
거리는 피델을 보고 그는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네.

“아! 피델아, 너도 다시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그는 전날 비르지니와 이야기를 나눴던 바
위에 앉아, 그녀를 데려간 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바다를 눈에 담고는 평평 울었다네.

그러는 사이 우리는 폴이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
해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다녔어. 폴의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은 그에게 절망에
빠져 자기들을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하지 말아달라며,
세상 가장 따뜻한 말로 간청하곤 했지. 마침내 라 투르 부
인은 폴의 희망을 되살리기에 딱 좋은 호칭들을 아낌없이
불러줌으로써 그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네. 그녀는 폴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위, 우리 딸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불렀어. 부인은 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
고, 와서 먹을 것을 조금 들라고 했네. 폴은 우리가 있는
식탁으로 와 그의 어린 시절 단짝이 앉던 자리 옆에 앉았고,
마치 비르지니가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그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그 아이를 잘 아는 만큼 비르지
니가 가장 맛있어하던 요리를 건네기도 했네. 하지만 그것
이 자신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